韓中 불교회화 정수를 만나다

동국대 · 항저우불학원, 불교회화 교류전 '불법동원' 개막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6월 18일, 교내 문화관 동국갤러리
한·중 작가 35명, 50여 점 선보여
7월 1일까지 진행, 12월 中서 전시
우호 증진 업무협약…공동 연구 등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항저우불학원 총장 광천 법사 등 내빈이 작품을 둘러보며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과 중국 불교회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다.

동국대와 항저우불학원은 6월 18일 동국대 문화관 지하 1층 동국갤러리에서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협력을 기원하는 특별전 '불법동원(佛法同源)' 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수예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 항저우불학원 총장 광천 법사, 전시 참여 작가 등이 함께했다.

이번 특별전은 동국대 불교미술전공과 항저우불학원 불교예술전공 간 상호교류 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한중 교류전시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 동국대, 항저우불학원, 절강성불교협회, 영은사, 주한중국대사관이 후원했다.

전시에는 한국작가 18명과 중국작가 17명이 동참해 전통불화, 응용불화 등 총 50여 점을 선보였다. 특히 전통회화 재료만으로 불교 속 여성을 표현한 김현주 작가의 'Buddha-Nature' 등 개성 넘치는 다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이수예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불교예술은 지혜와 미학을 담고 있다"며 "이 전시회가 한·중 두 나라의 불교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7월 1일까지 이어지며, 올해 12월에는 중국에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작가들에게 각각 작품에 대한 제작 과정과 해설을 듣고 활동을 격려했다. 돈관 스님은 "불교문화와 예술적 전통을 수호하며 불심으로 정진하는 동국대 불교미술전공과 항저우불학원 예술원 여러분이 주축이 돼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참으로 의미가 깊다"며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문화에는 민족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불교미술이 있다. 불교미술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불교미술은 민족의 예술성을 구현하는 한국문화의 꽃이다. 특히 전통예술 분야와 종교예술 분야에 있어 그 독창성과 감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와 미덕이 이번 전시에서 잘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제정 스님도 특별전 개막을 축하하며 "이번 전시회가 양국 불교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불교예술로 화합하는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저우불학원장 광천 법사는 "예술은 국경, 문화, 언어를 초월하는 가교로서 독특한 방식으로 다른 문명 간의 교류와 이해를 촉진한다"며 "이번 전시에서도 두 나라 예술가의 뛰어난 기량과 깊은 사유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문화의 오랜 유산과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천 법사는 이어 "이번 전시를 계기로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우정을 더 깊이 형성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항저우불학원은 중국 절강성 항저우에 위치한 불교대학이다. 1998년 광천 스님의 제안과 항저우불교협회의 승인을 받아 항저우불교승가진수반(杭州佛教僧伽進修班)을 설립했다. 2005년 중국 국가종교청의 승인으로 '항저우불학원'으로 개칭됐다.

2010년에는 사찰 경영자와 불교 이론·예술을 연구하는 스님을 양성하기 위해 불교예술원을 설립, 중국 유일의 불교예술을 교육하는 종합 불교대학으로 거듭났다. 불교예술원에는 불교서예, 불교 회화, 불교 조각 등 3개 전공으로 구분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불학원은 현재 한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 관계를 유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불법동원' 개막식에 앞서 동국대와 항저우불학원은 동국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및 교수 교류 △공동 전시회, 공동 연구 실시 △학술 답사 △장기 혹은 단기 교환 학생 프로그램 △기타 교류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 제5회 상담학술상 공모

10월 23일까지 논문 제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제5회 '불교상담학술상'을 공모한다.

논문 주제는 '불교상담심리' 및 '불교심리치유'에 관한 자유 주제이다. 응모는 불교상담심리 관련 전공자 혹은, 관련 종사자 모두 가능하다. 논문은 10월 23일까지 학회 이메일(kbca08@hanmail.net)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단, 이미 발표되었거나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제외한다.

대상·우수상·장려상 각 1명씩이다. 대상은 3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11월 예정이며, 수상작은 한국불교상담학회지 〈불교상담학연구〉에 게재된다.

이번 학술상은 한국불교상담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금강명상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현 스님 "불교학 대중화 견인하겠다"

한국불교학회 회장 취임법회
후원금 1억 4500만원 모연


자현 스님은 취임사에서 대중과의 소통에 불교학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6대 한국불교학회장으로 취임한 자현 스님이 불교학 대중화와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불교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6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불교학 발표 현장은 대중의 관심이 괴리된 부분이 있다. 여성, 낙태 등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와 사회현상과 밀접한 불교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조계종 불학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 등 기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출가자 감소와 탈종교화 문제 등도 풀어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비혼 독신자들이 늘지만 출가자가 줄어드는 것은 소통과 관점의 문제"라며 "한국불교학회가 대중과의 소통 고리가 되는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현 스님은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로 있으며 7개 박사학위와 65권의 저서 및 공저, 논문 190여 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구독자 25만명의 유튜브 '자현 스님의 쏘댕기기'를 운영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자현 스님은 한국불교학회장 취임과 함께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의 2000만원을 비롯해 월정사에서 5000만원이,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2500만원 등 총 1억 4500만원의 후원금이 모연됐다.

취임식에도 포교원장 선업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철우 스님,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 이후에도 불교학 발전을 위한 후원에 동참했다.

한편, 자현 스님의 임기는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수불자들 탈종교시대 해법 모색한다

7월 2~4일 교수불자대회 개최
'한국불교가 가야 할 길' 주제

시대 변화에 맞춘 전법 콘텐츠 개발과 운용으로 포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대전대 교수, 교불련)는 7월 2~4일 서울 동국대 일대에서 '탈종교 시대의 종교 정체성과 한국불교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2024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열리는 대회에서는 총 20개 학술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특히 첫날은 불교계의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는 '시사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특별세션에서는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이 '이승만 정부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과 그 극복 방안'을, 민순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이 '불교역사 왜곡 현황과 실태-주어사·천진암을 중심으로'를,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이 '천주교 성역화에 가려진 내포지방 민중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불교 역사 왜곡과 편향 행위에 대해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원·서울대·KAIST·불교TV 등에서 우주와 자연, 뇌와 생각을 주제로 강연해 온 박문호 美텍사스 A&M대 공학박사의 '인공지능 시대의 탈종교 경향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기조 강연과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 초청 자비명상 체험도 준비돼 있다.

'전법'을 중심으로 한 발제도 주목된다. 대회 이튿날 저녁에는 '불교동아리 창립 및 운영 모델 정립을 위한 사례 연구'를 주제로 50여 개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대학생들이 참여해 창립 준비와 운영 과정을 소개한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탈종교의 새로운 환경을 맞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청년·대학생 전법을 위한 사부대중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통해 탄탄한 불교중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700년 고찰 봉국사 불교미술 살피다

한국미술사硏 제62회 학술대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6월 29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700년의 고찰 봉국사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제62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봉국사 목조석가불좌상의 종합적 연구' 기조발제로 시작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봉국사의 불상, 불화 전반을 살피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수완 우석대 교수는 '봉국사 석조약사불좌상의 연구'를, 심주완 불교중앙박물관 행정관은 '봉국사 명부전 지장시왕상 연구'를 발표한다.

봉국사 명부전 지장시왕도에 대해서는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고승희 동국대 교수가 봉국사 괘불도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문무왕 동국대 외래교수는 '봉국사의 역사'를 발표한다.

신중일 기자

석굴암·반구대 기증 사진 400점 추가 공개

강우방 · 故 한석홍 기증 사진
2021년 1차 공개 이후 추가로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 한석흥 씨가 촬영한 석굴암 본존불.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추가로 공개했다.

원로학자와 문화유산 전문 사진가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과 반구대 암각화를 기록한 사진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원로학자 강우방 씨가 기증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 108점과 국가유산 사진작가 고(故) 한석홍 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 295점을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6월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2019년 강우방 씨 본인과 한석홍 작가의 유족으로부터 평생을 바쳐 활동해 온 개인 소장 기록물 약 7만여 점(강우방 6만여 점, 한석홍 1172점)을 기증받은 바 있다. 이들 기록물은 개인 연구를 위해 촬영한 각종 사진과 필름을 비롯해 해외 유명 전시와 도록, 연구서에 수록된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중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 69점을 고화질 디지털로 변환해 2021년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자료의 누적 내려받기(다운로드) 건수는 총 3만 2000회를 넘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한국문화정보원과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협업을 통해 고화질 디지털화를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정·복원을 완료한 사진 약 400여 점이다.

강우방 씨가 1990년대에 촬영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촬영 사진은 당시 암각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한석홍 작가의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은 본존불과 여러 조각상들의 모습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의 경우 2021년에 공개됐던 〈석굴암 그 사진〉(2020) 도록 수록 사진들의 컬러·흑백 촬영본과 추가 보정본을 함께 공개해 학술연구와 자유로운 활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되는 기증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따라 공공누리 1유형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통도사 佛母 후학들 작품 '한자리에'

통도사 성보博 불화반 전시
7월 7일까지 기획전시실서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진응 스님)이 제14회 불화반 작품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전시에서는 불화반 수강생들이 출품한 34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석가모니후불탱, 아미타여래불, 문수·보현보살 등 불화반 수강생들이 그린 작품 40여 점과 송판에 불화를 그린 작품 40여 점 등 약 8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옻칠 일엽관음', 불화강사 조해종 '8곡 팔금강', 정병국 교수 '미륵삼존', 이승규 '잠발라 보살' 등 초대작가의 작품 10점도 감상할 수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불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화폭에 담아 청정세계의 불보살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넘어 불교의 세계를 이해하고 종교적 신심을 담아내야 한다. 그렇기에 불모에게 불화는 끊임없는 자기 수행과 정진이 요구된다"며 "그동안 산사에서 마음을 닦으며 우리의 삶과 불교의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정진해 온 불화반 수강생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작가 성파 대종사 작품 '옻칠 일엽관음(一葉觀音)'

하성미 부산주재기자